

News

금융당국 “신한금융, 배당 자제해야” 유상증자 이어 주주 또 울상

조선일보

신한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1조1582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로 인식
신한금융은 외국계 사모펀드를 주요 주주로 영입하면서 중간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하지만 금감원 배당 자제 요청으로 주주가치 재고 요원

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들... 신용대출 잔액 하루새 2400억 감소

동아일보

가파르게 급증하던 신용대출 잔액이 최근 하루 새 2400억 원 넘게 줄어... 대출 규제를 앞두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 간 데다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결과
추석 연휴 직전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것...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금전까지 끌어 쓰는 금융그룹...유동성 압박 '이중고'

데일리안

국내 4대 금융그룹들이 콜거레 시장에서 끌어 쓴 돈이 올해 들어서 두 배 넘게 불어나면서 5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진데 따른 영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

손보사, '살까 vs 세울까' 신한금융의 고민

머니투데이

악사손보의 예비입찰에는 교보생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신한금융은 빠져... 대형 매물 시장에 나올 가능성 없어... 설립과 인수 저울질 지속
"신한금융은 KB손보에 견줄만한 손보사가 필요한 상태라 당분간 중소형 매물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견줄 수 밖에 없을 것"

기준금리 내렸는데...보험대출금리 되레 올라

매일경제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이 최근 2년 새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약관대출 금리를 올려... 가산금리를 올릴 만한 변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져...
"매일 염려도 없는 대출인 만큼 보험사도 달라진 금융 여건에 맞게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적금을 카드로 내나요? ...보험사, 보험료 카드납 강제화에 '반발'

아시아경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칫 수수료 부담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과금이나 세금은 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카드이용자를 차별한다고 하는데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하면, 적금이나 펀드투자도 카드결제를 허용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

공모주 일반청약 비중 30% 이상으로 늘린다

디지털타임스

금융당국이 현재 20% 수준인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식 일반 청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공모주가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참여 기회를 더 넓혀주자는 취지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할 수 있으나 통상 20%만 배정되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어... 다만 투자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IPO에서 일반 청약 확대가 독이 될 수도

공매도 불신에 증권사 갈아타기 시도

뉴스토마토

주식 대차(대여)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로 갈아타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 나타나... 본인의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식 이관 문의도 늘어...
지난 3월 초 73조원에 육박했던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감소해 54조~56조원대 수준을 유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